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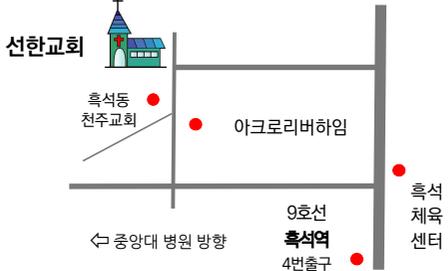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예 스 더 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박 희 태	<b>500/50 교 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b>장 로</b>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담임목사 임 춘 배

#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9장 (통일찬송가 53장)
교 독 문	교독문 1 (시편 1편)
찬 양 과 경 배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22장 1 ~ 14절
설 교	<b>혼인잔치 초청 비유</b>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생활습관 (잠12:26-13:11)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무 처 리 회** 1월 17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일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율1장~말4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 5.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6. 2021년 달력 및  
말 씬 카 드** 2021년 달력과 말씀 카드가 제작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달력을 선택해 알려주시면 가정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전도사 개인 카톡으로 신청) 말씀 카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추어 나갑니다.

#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임을 고백하기를

찬송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통 535)

본문 : 전도사 3장 1~11절

말씀 :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며 14쌍의 때를 나열합니다. 각기 쌍을 이룬 것을 살펴보면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만 한 쌍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상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각기 떼어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쌍의 때가 서로 한 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사랑은 미움을 잉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미움이 큼니다. 미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중에 평화를 꿈꾸고 평화중에 전쟁을 대비합니다.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죽이는 것이 치료이기도 하고 치료해도 결국 죽게 됩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웃음을 주던 대상이 울음을 줍니다. 울어본 자가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우월하지 않고, 잃은 것이 찾는 것보다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각 쌍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닌 한 줄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는 만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고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때가 모두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은 봄대로 찬란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싱그럽고, 가을은 가을대로 깊고 겨울은 겨울대로 강력한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20대는 2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날 것은 날 것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각기 그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괴롭습니다. 20대에 10대를 부러워하며 보낸 사람은 30대가 되어서는 도리어 20대가 좋았다며 20대를 부러워합니다. 40대나 50대가 되면 차라리 어서 6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때를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왕년에' 머물러 살거나 과거를 원망하며 삽니다. 막연한 미래에 희망을 걸며 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기도 합니다. 도무지 지금을 살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혹시 지금 청년의 때입니까. 혹은 중년의 때, 노년의 때입니까. 지금 사랑의 때입니까, 미움의 때입니까. 희망의 때입니까. 아니면 좌절의 때입니까.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아름다울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만나야 하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때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때는 좋을 때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구원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만나면 이 땅에 아름답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제목

혼인잔치 초청 비유 (마22:1-14)

서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론

## 1. 혼인잔치 초청 비유

- (1)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음(2절)
- (2)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심(3절)
- (3)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함(4-6절)
- (4)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함(7-9절)
- (5)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남(11-13절)
- (6) 의미: ①왕(하나님)/아들(그리스도)/종들(하나님의 일꾼들)  
②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유대인)  
③나중에 온 사람들(모두에게 열려진 초대)  
④혼인 잔치의 예복(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롬13:14)
- (7)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14절)

## 2. 교훈

- (1) 혼인잔치 초청의 의미는?
- (2) 나는 혼인잔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 (3)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결론

혼인잔치 참여를 위해 예복을 입고 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사랑의 문안

날짜 : 1월 11일

찬양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본문	요한삼서 1:1-15
	<p>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가까운 형제자매는 물론 낯선 이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사례를 따로 받지 않고 헌신하는 순회 전도인들이 자기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보살피주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잘 보살핀 사실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되는 초창기이니 만큼 복음을 위해 이방인 사역을 하되 자비량으로 섬기는 이들의 몰골은 참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내밀지 않고, 정성껏 보살피 준 일은 결국에는 가이오 역시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p> <p>가이오는 삶을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었기에 자신의 재산을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는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반면 디오드레베는 삶의 목적을 으뜸이 되는 것에 두었기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수단삼아 자신과 조금이라도 경쟁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내치는 생명을 죽이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되었습니다.</p> <p>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하여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며 칭찬한 가이오처럼 삶의 목적을 진리이신 주님에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 그리고 건강 등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역설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p>
묵상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기 위한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말씀의 성취, 임마누엘”

찬양과 기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9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어릴 때 교회에서 갔던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필리핀 ‘목회자 훈련원’을 방문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집들을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당 중간에 있는 우물가에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남루해 보이는 한 사람이 오더니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현지 산악 마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제 손을 가리키셨습니다. 제게 시계를 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죄송해요. 이 시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종일 무거웠습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난 뭐하는 것인가? 얼마나 시계가 필요하셨으면 달라고 하셨을까?’ 선교지에 있지만 물과 기름같이 분리돼 있는 내 모습, 포기하지 못하고 전혀 낮아지지 않은 내 모습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눔 시간에 우리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p> <p>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 있게 돼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내려놓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간 경험이 있나요? 내려놓음이 가져온 영적 유익은 무엇이었나요?</p>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1:18~25
묵상포인트	<p>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요셉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온 백성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시며 전능한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인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요셉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약혼을 어떻게 파기하려 했나요?(18~19절)
적용하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당황한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한 그분의 뜻을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나요?
함께 기도하기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마태복음 2:13-23
	<p>피조물의 반응,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 경배, 헤롯의 두려움 등이 예수가 메시아 된 외적인 증거들이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1장에서 언급된 내용, 곧 아기 예수 탄생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며, 그러한 초자연적 섭리에 의한 탄생은 당연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p> <p>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광분하여 아기 예수 죽음을 놓일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알려 주셨고 헤롯이 죽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가 그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은 메시아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줍니다.</p> <p>예수가 메시아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탄생 직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있었고 그 오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아람의 타락 직후부터 있었던 메시아 탄생 예언은, 야곱, 이사야 등에 의해 예언되었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이심이 틀림없습니다.</p>
묵상질문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본문	마태복음 1:1-17
	<p>1-17절이 보여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곧 구원의 조상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의 표상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시요, 장차 하나님과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p> <p>현대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죽음, 부활 등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러나 마1:1-17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가상의 인물이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닌 인간의 삶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인간들과 같이 살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 그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신 역사 속에 실재했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 속에 실존했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만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p>
묵상질문	나와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본문	마태복음 1:18-25
	<p>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의 하나는 그의 탄생을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어졌으며 태어나기 직전에도 천사에 의해 예고되어진 뒤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알려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p> <p>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두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리아는 처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이 지은 죄, 곧 원죄를 입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세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허구의 존재였다면 그의 구원 사역도 허구이므로 아무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하였고 아이를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p>
묵상질문	순종은 어떤 것인가?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
본문	마태복음 2:1-12
	<p>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한 말에 의하면 예수, 곧 메시아의 탄생은 자연 세계조차 기뻐하여 그분의 탄생을 나타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의 별조차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여 그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p> <p>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인식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경배 받으실 분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p> <p>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왕궁으로 갔을 때 헤롯을 만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긴장하였고 그래서 두 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는 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참되신 왕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자 거짓되고 유한한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참으로 모든 인류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p>
묵상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신할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	